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메시지 7

육체 안에서와 그 영 안에서

성경: 롬 1:9, 2:28-29, 7:17-18, 20-21, 8:4-6, 9-10, 13, 16, 12:11

I. 연합된 영, 곧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그 영(롬 8:16, 고전 6:17)에 의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A. 육체는 부패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몸이다.

1. 사람의 몸은 원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이 자기 자신을 사람 안으로 주입하여 사람의 몸은 육체가 되었다 — 창 3:6, 롬 7:18 상.
2.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이자 '이 죽음의 몸'(롬 7:24)이다. 죄의 몸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며,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약하고 무력하다(롬 7:18).
3. 우리가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죄와 죽음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 비교 롬 8:23.
4. '육체'라는 말은 또한 우리의 타락한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타락한 존재는 오늘 타락한 육체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육체이다 — 롬 3:20, 창 6:3 상.

B.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소'이며 복합체이다. 육체는 가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 없다 — 롬 7:17-18, 21, 비교 요 17:15.

C.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 롬 8:7-8.

D. 죄는 '악'으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 자신이다 — 요 17:15, 롬 7:21.

1. '악'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인 사탄 자신의 악한 생명과 본성과 특성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잠복해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2. 죄는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롬 7:11), 주장할 수 있다. 즉 우리를 지배하고(롬 6:12, 14), 우리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다(롬 7:17, 20). 이 모든 활동들은 죄가 살아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3. 죄는 악한 자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한 후에 이제는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고, 활동하고, 일하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이 되었다 — 비교 마 16:22-23.
4.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로마서 7 장 17 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또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 죄인 사탄이 육체를 완전히 점유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 롬 7:18 상.

II.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로 가득하고 추한 육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시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그분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그 영을 더 얻게 하신다 — 골 2:19, 속 4:6.

A.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제 삼의 장소는 없다. 믿는 이는 에덴 동산의 축소관 — 영 안에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 안에 지식나무인 사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 이다 — 롬 8:6.

B. 법리적인 면에서 사탄과 우리의 육체는 둘 다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영원히 유죄판결 받았지만(롬 8:3, 요 3:14, 히 2:14, 고후 5:21),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더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육체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빌 3:3).

- C. 죄로 가득하고 추한 육체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거나 그분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에 필사적이지 않을 것이다 — 롬 8:6, 13.
- D.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 주님께 열고 그분께 더 기꺼이 돌이키며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 롬 8:28-29.
- E. 우리가 그분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악한 복합체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영으로 돌이키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영을 더 얻는다 — 비교 출 23:23, 29-30, 사 2:21-3:4.
- F. 우리의 역경, 패배, 실패, 실망은 우리가 육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육체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우리를 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밀어넣고,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이 되게 하며, 영 안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 깨어 있게 하는 데 좋을 뿐이다 — 마 26:41, 엠 6:17-18.
- G. 주님은 우리가 승리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그 영이신 그분을 얻었는지만 관심하신다 — 빌 3:8, 고후 3:17-18.

III.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은혜가 복합된 놀라운 복합체이다 — 딤후 4:22, 롬 8:16, 갈 6:18.

-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복합된 영을 따라 행하기(영을 따라 처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함이 영을 따르는 생활)를 원하신다 — 롬 8:4, 빌 1:19, 고전 6:17, 비교 출 30:23-25.
- B.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만이 지방 교회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지방 교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 — 갈 5:16-26.
- C. 로마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우리를 종교의 허무함에서 지켜줄 것이다 — 롬 1:9, 7:6, 빌 3:3.
 - 1. 모든 영적인 것의 실재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따라서 모든 영적인 것의 실재는 우리의 영을 떠난 어떤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에 달려 있다 — 롬 8:5-6, 9-11.
 - 2.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외적인 것’이라면 허무한 것이다 — 롬 2:28-29, 8:4, 10, 13, 12:11.
 - 3.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롬 8:16, 딤후 4:22.
- D.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영을 보존하셨다 — 슥 12:1, 잠 20:27.
- E. 오늘 우리의 영은 참된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삼층천에 있다 — 엠 2:22, 창 28:12, 17, 19.
- F.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 히 10:22상, 4:16.
- G.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질 수 없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망대 안에 머무는 것이다 — 요일 5:4, 18, 요 3:6, 14:30.
- H.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생명(헬라어로 조에)이다 — 롬 8:10.
 - I. 우리의 영은 하나의 장소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다 — 요 4:23-24, 시 133.
 - J. 하늘에 속한 영적 양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의 증거가 되고 그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 — 요 6:57, 63.